

엄마의 최애 음식은 감자탕

떨이 지어준 외할머니의 별명은 천사
사랑은 늘 내리사랑이라면 우리 엄마
는 주고도 또 주고 싶어
단처럼 많이 다 내어 주시는 우리 엄마

그런 엄마의 최애 음식은 감자탕
엄마와의 외식은 언제나 감자탕
그땐 몰랐지
왜 최애 음식이 감자탕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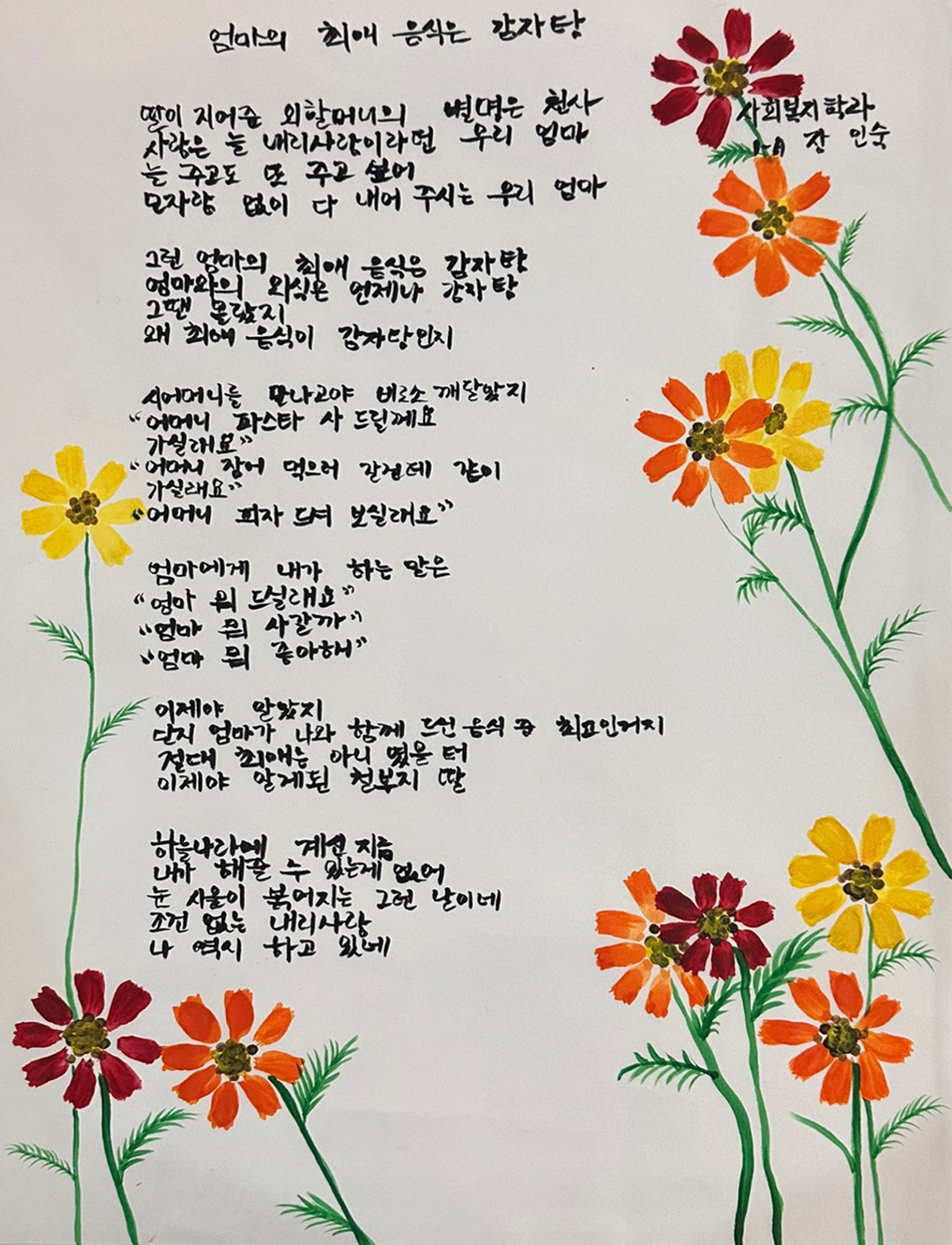
외머니를 만나고야 비로소 깨달았지
“어머니 파스타 사 드릴게요
가실래요”
“어머니 장어 먹으러 갈래요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 피자 드려 보실래요”

엄마에게 내가 하는 말은
“엄마 뭐 드실래요”
“엄마 뭐 사갈까”
“엄마 뭐 좋아하셔”

이제야 알았지
단지 엄마가 나와 함께 드신 음식 중 최요인거지
절대 최애는 아니었을 터
이제야 알게된 천부지 땅

하늘나라에 계신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없어
눈 사물이 북어지는 그런 날이네
조금 없는 내리사랑
나 역시 하고 있게

사회복지학과
1-A 장 인숙



고전 도서명

생활의 발견<임어당>

작품 설명

101 고전 중 생활에 대한 자세와 참된 인생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삶의 지침서인 임어당이 쓴 '생활의 발견'을 읽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나의 부모님은 자식들이나 동생들에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며 늘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그런 분들이셨다. 자식이 돈 쓰면 아까워하시고 자식 생각해서 받는 거에는 인색하셨다. 그중에도 유독 엄마와의 일상이 많이 생각이 났다. 엄마는 나와 단둘이 하는 외식은 어느 순간부터 감자탕만 드셨다. 그래서 감자탕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하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를 엄마가 선택하게 했던 것 같다. 시골 분이 외식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 많은 종류의 음식 중 모르는 메뉴도 많았을텐데 왜 그냥 모시고 가서 사 드릴 생각을 못 했나 아쉽고 참 미련한 나였던 것 같다. 세월이 지나 생활에서의 지혜와 깨달음을 안 지금 엄마가 생각하기에 감자탕 정도가 딸이 사도 되는 적정의 금액이었던 것 같다. 유독 비싼 식당을 모시고 가면 "나 그거 안 좋아해"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시어머니께 무조건 선택하게 하지 않고 그냥 안 해보신 것, 안 드셔 보신 것 다 해드리고 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생각한다. 나 역시 부모님처럼 아낌없이 내어주는 내리사랑 중이다. 그리고 그림으로 코스모스를 그린 이유는 살아생전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이 코스모스이다.